

# 노인여성의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

## A Study on Clothing Weight and Cornell Medical Index in Elderly Women

김양원\*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Kim, Yangweon**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Daejeon university

---

### Abstract

From the environmental adaptation point of view, the clothing habits made by the thermal sensation and clothing weight of elderly women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thermal sensation and health con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healthy and comfortable clothing for elderly women. Clothing weight, thermal sensation, clothing microclimate, resistance to cold and heat of 198 elderly women in Taejeon were surveyed from October 9, 2007 to October 19, 2007.

1. Clothing weight per body surface area was 830.4g/m<sup>2</sup> of total clothing weight, 242.8g/m<sup>2</sup> of underwear clothing weight, 617.3g/m<sup>2</sup> of outerwear clothing weight, 419.8g/m<sup>2</sup> of upper clothing weight, and 420.4g/m<sup>2</sup> of lower clothing weight.
2. More than 90%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felt comfortable when the temperature inside the clothing was 33.5°C and humidity inside the clothing was 30.2%.
3. The elderly women were more sensible to cold than to hot, those who felt cold had a tendency to wear heavier clothing.
4. The appeal rate for physical pain of older and lower income people, especially those with an income under 1,000,000 won,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lower the subjective economic level, the younger they were, and the more the monthly average income was, the higher the rate of mental pain.

5. The heavier the total clothing weight was, the higher the appeal rate for general pain.

**Keywords** : clothing weight, Cornell medical index, resistance to cold and hot, elderly women

### I. 서론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건강관련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UN이 정의한 노인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였고, 200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총인구의 10.3%를 차지하여 절대 인

구 500만 명을 돌파하였다(통계청, 2008). 이렇게 초고속 노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노인문제가 큰 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건강유지의 문제가 있는데, 노인들은 주로 순환계 질환 및 소화계, 근골격, 결합조직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중 순환계 질환은 기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의 사망 패턴을 보

---

\* Corresponding author: Kim, Yangweon  
Tel: 042-280-2463  
E-mail: kyang@dju.ac.kr

더라도 여름이나 겨울에 사망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과 같은 기후요소에 대한 적응능력저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은 개인의 적응능력에 따라 의복을 많이 입기도 하고 적게 입기도 하며, 의복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환경 (portable environment)을 조성하며 평생에 걸쳐서 착의습관을 만들어 간다. 평생에 걸쳐서 형성된 착의습관에 의해 의복기후 등이 형성되고, 인체는 그 미세환경 속에서 온열적 적응을 하므로 의복은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인자가 된다. 특히 의복은 인체의 가장 가까워서 온열환경과 접하여 외부로부터의 복사나 대류, 증발의 정도를 조절하므로 인체의 체온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은 젊은 성인과는 달리 노화와 동시에 생체기능이 저하하게 되어 한냉자극에 대해서는 직장온의 강하도가 크고, 피부혈류의 감소에 대한 반응개시가 늦으며, 피부온의 변화도가 적어서 저체온이 될 가능성이 크며, 온열적 자극에 대해서는 고체온이 되기 쉽다고 한다(Wagner *et al.*, 1974; Cena *et al.*, 1986). 즉, 노인들은 추위와 더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는 체온조절중추 기능의 대응력 저하에 따라 항상성이 흐트러져지기 쉬우므로 노인들은 항상 추위와 더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Iraki, 1987). 또한 환경기온이 급격히 저하되면 혈관의 수축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와 산소공급저하에 따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순환기 계통의 질환들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환절기에는 노인의 사망률이 증가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적절히 의복을 입거나 다른 문화적인 적응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여름과 겨울에 실내에서는 주로 냉방이나 난방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휴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항상 옆에서 기후인자의 자극에 대해 의복처럼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착의량에 관한 연구는 착의실태조사(박숙희, 1987; 박우미, 1983),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 연구(류숙희, 1983; 송명건, 1987; 정운선, 최정화, 1984) 등의 착의량에 의한 적응수단 진단(김양원, 1992),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착의량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체온조절이 기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저하되므로 건강관련변인과 착의량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노인이 매일 착용하는 의복이 매우 중요하므로 노인의 건강생활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복을 조사할 필요가 있

다. 노인에 적합한 착의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과 착의량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반기로 접어드는 가을철 노인 여성의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여성 198명으로 시내에 있는 노인정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신체적 조건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조건

연령 (세)	신장 (cm)	체중 (kg)	가슴둘레 (cm)	허리둘레 (cm)	엉덩이둘레 (cm)	BMI*
66.2±4.2	155.3±4.8	53.5±8.3	84±7.8	78.5±9.4	93.3±7.4	22.3

\* BMI: Body Mass Index

### 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 1) 조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노인의 의생활에 관한 조사는 국제 생물학 사업계획(I.B.P: International Biological Program)의 의복조사양식을 참고로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환경조건, 한서감각, 내한내열성, 일반적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은 CMI(Cornell medical Index)조사를 기초로 하여 조사하였다.

#### 2) 조사내용

##### (1) 조사 기간 및 환경조건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였다. 조사일은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가을의 보편적인 날씨를 보이는 맑은 날로 택하였다. 의복실태조사시마다 환경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세 군데에서 기온, 상대습도, 기류를 측정하여 그것들을 평균하였다. 이때 온습도 측정은 August 건습계를, 기류 측정은 Kata 한난계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장소의 환경조건은 실내온도 23.9 ±

2.3℃, 상대습도 53.8 ± 12.3%, 기류는 0.4± 0.1m/sec 였다.

#### (2) 착의실태조사

조사대상자가 노인정에서 입고 있는 의복을 대상으로 상, 하의로 구분하여 의복 각각의 중량을 재었고, 이것을 총착의량, 상의량, 하의량, 겉옷량, 속옷량으로 구분하였다. 의복의 무게는 10g 감도의 디지털 전자저울을 사용하였다.

#### (3) 한서감각 및 내한내열성

착의실태 조사시 한서감각과 내한내열성을 동시에 설문조사하였다. 한서감각의 정도는 ASHRAE의 정신·심리적 7등급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답하도록 하였다. 내한내열성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위와 추위에 대하여 견디는 수준을 직접 대답하도록 하였다.

#### (4) 건강관련변인 조사

노인의 건강관리 및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관리 및 건강수준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코벨 의학지수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코벨의 학지수) 건강조사표는 ‘예’, ‘아니오’, ‘모르겠다’, ‘묻는 뜻을 모르겠다’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총 19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신체적 호소(신체적 자각증 호소), 일반적 호소(노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 증 호소), 정신적 호소(정신적 자각증 호소) 등의 45개 항목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도 각 항목의 중상에 따라서 신체적 호소, 일반적 호소, 정신적 호소로 나뉘 하였다.

#### (5) 의복기후

의복기후는 Thermo Recorder TR-72S(일본 T&D co.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노인들이 의복조사시 착용한 의복 그대로의 상태에서 의복기후 측정용 센서를 가슴부위에 붙인 후 20분 후에 1회 측정하였다.

#### (6) 통계방법

착의실태조사와 코벨의학지수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을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빈도수를 구하였으며, 유의차 검증은 ANOVA test와 T-test를 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인원은 198명으로 평균 연령은 66.2세였고, 이들의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50.5%로 가장 많았고, 무학 25.3%, 중졸이상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은 잘 산다는 비율이 38%, 못 산다는 비율은 21.3%였다. 생활비용의 출처는 자녀로부터 얻는 비율이 55.6%로 가장 높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연령(세)	60-69
70-79		92 (46.5)
80-89		33 (16.7)
교육수준	무학	50 (25.3)
	초등학교 졸업	100 (50.5)
	중학교 졸업이상	48 (24.2)
주관적 경제적 수준	아주 못 산다	12 (6.1)
	못 산다	30 (15.2)
	보통이다	118 (59.6)
	잘 산다	20 (10.1)
생활비 출처	아주 잘 산다	18 (9.0)
	본인 조달	70 (35.4)
	타인 조달	128 (64.6)

#### 2. 한서감과 의복기후 및 착의량

##### 1) 한서감 및 의복기후

조사당시 일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신적으로 느끼는 한서감을 ASHRAE의 7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노인들의 한서감 평균은 4.7로 약간 서늘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쾌적대(3: slightly warm, 4: comfortable, 5: slightly cool)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은 88.3%였다. 노인여성의 경우 여름에는 65%, 겨울에는 85%가 쾌적하다고 답한 결과(김양원, 1997)에 비교하여 봄 때 가을에 쾌적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높음을 볼 수 있었다. 계절에 적응하기 위하여 착의량, 의복디자인, 의복소재를 달리하여 의복을 선택해 착용한다 하더라도 쾌적하게 느끼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여름이나 겨울

의 환경조건은 의복만으로 한서감을 조절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또, 한서감에 따른 가을철 총착의량에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영옥(1993)의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서감에 따른 지역간, 연령간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Rohles(1972)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쾌적감을 조사하였는데, 남녀 노인간, 남자대학생과 남자 노인간에는 쾌적감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조사 당일 의복착용시 노인들의 의복기후는 의복최내층 온도는  $33.5 \pm 1.4^\circ\text{C}$ , 의복내습도는  $30.2 \pm 7.9\%$ 로 표준의복기후와 비교하여 보면, 의복내온도는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의복내습도는 낮았다. 이는 의복내온도가 표준의복기후보다 약간 높으면서도 한서감의 평균이 4.7로 '약간 서늘하다'에 가까운 것은 노인은 온도지각능력이 젊은 층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 2) 착의량

환경과 인체의 계절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복의 디자인, 소재, 입는 방법들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착의량에 차이가 생긴다. 노인여성의 가을철 총착의량은  $830.4\text{g/m}^2$ , 속옷량은  $242.8\text{g/m}^2$ , 겉옷량  $617.3\text{g/m}^2$ , 상의량  $419.8\text{g/m}^2$ , 하의량은  $420.4\text{g/m}^2$ 였다. 이를 정영옥(1993, 1992)의 60대이상 농촌노인의 총착의량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 3) 내한내열성

의복실태조사시 각 개인이 더위와 추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함께 조사하였다. 내한내열성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로 볼 때 노인들은 44%이상 더위를 타는 편이었고, 63.2%가 추위를 타는 편이어서 더위보다는 추위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노인의 체온조절반응에서 온도지각능력이 추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의복선택행동에 있어서도 신체를

<표 3> 노인의 내한내열성에 대한 조사결과

내열성	명(%)	내한성	명(%)
매우 더위를 탄다	20(10.1)	매우 추위를 탄다	32(16.2)
더위를 탄다	68(34.3)	추위를 탄다	93(47.0)
보통이다	74(37.4)	보통이다	48(24.2)
더위를 타지 않는다	28(14.1)	추위를 타지 않는다	18(9.1)
전혀 더위를 타지 않는다	8(4.1)	전혀 추위를 타지 않는다	7(3.5)

열적으로 쾌적하게 유지시키고자 할 때 추위를 타는 사람이 타지 않는 사람보다 옷을 더 많이 착용하여 오히려 따뜻한 느낌을 선호한다는 정운선(2000)과 Collins(1981) 등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 4) 한서감각과 착의량

의복실태조사 당시 착용하고 있는 의복 상태로 느낀 전신적 온열감을 ASHRAE의 정신 심리적 7등급으로 나누어 한서감에 따른 착의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매우 덥다'와 '매우 춥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 '덥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평균 착의량은  $836.4\text{g/m}^2$ 였고, '춥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평균 착의량은  $889.4\text{g/m}^2$ 로 '덥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춥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평균 착의량의 차이는 약  $53\text{g/m}^2$ 였다. 그러나 ANOVA 분석 결과 노인들의 가을철 한서감에 따른 착의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p > .05$ ). 덥다라고 느끼는 그룹(한서감 2, 3)과 춥다라고 느끼는 그룹(한서감 5, 6)의 착의량을 t-test결과 춥다라고 느끼는 그룹이 덥다라고 느끼는 그룹보다 착의량이 많았다( $p < .1$ ).

<표 4> 한서감에 따른 착의량

한서감	1	2	3	4	5	6	7
빈도 (%)	0(0)	11(5.6)	39(19.6)	85(42.9)	51(25.8)	12(6.1)	0(0)
착의량 ( $\text{g/m}^2$ )	-	836.4	829.3	827.2	870.1	889.4	-

1:매우 덥다 2:덥다 3:따뜻하다 4:쾌적하다 5:서늘하다 6:춥다 7:매우 춥다

## 5)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건강관련변인

CMI 총 185개 항목 중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45항목만을 추려 각 항목의 내용에 따라 신체적 호소, 일반적 호소, 정신적 호소로 나눠 분석하였으며, 코넬의학지수의 측정 척도는 예, 아니오, 모르겠다, 묻는 뜻을 모르겠다로 이루어져 있어 예라고 답한 경우만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관련변인중 신체적 증상에 관한 호소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았으며( $p < 0.05$ ), 학력에 따른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층보다 신체적 호소율이 낮았다.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계층에서 신체적 증상에 관한 호소율이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변인(%)

일반적 특성		신체적 호소율				일반적 호소율				정신적 호소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연령(세)	60대	37.3	46.6	13.8	2.7	34.8	50.7	12.3	2.2	29.7	41.1	20.5	8.2
	70대	41.8	37.0	15.2	6.5	44.3	40.2	10.9	4.3	27.2	58.7	6.5	7.6
	80대	45.6	24.2	21.2	9.0	44.9	27.3	21.2	6.1	24.1	48.5	15.2	12.1
학력	무학	41.7	30.1	16.1	10.1	39.6	32.2	18.0	10.2	29.2	46.4	8.3	16.1
	초등학교졸업	40.5	47.3	7.2	6.0	39.3	42.4	14.2	4.1	25.0	52.0	10.5	12.5
	중학교졸업이상	44.7	39.6	10.4	6.3	42.2	47.9	8.3	2.1	33.5	56.3	6.3	4.2
월평균 소득	50만원미만	43.8	46.2	6.3	2.7	40.1	38.7	16.2	9.5	21.9	62.8	13.2	2.2
	50~100만원미만	46.5	45.4	4.8	3.3	42.7	41.8	9.5	6.0	26.7	61.5	8.6	3.2
	100~150만원미만	28.0	59.8	8.4	4.4	40.0	43.0	8.0	9.0	20.0	66.5	9.5	4.0
	150만원이상	33.3	55.4	7.6	3.7	33.3	46.1	12.3	8.3	13.3	70.0	8.8	7.9
주관적 경제수준	아주 못 산다	45.3	5.3	0	8.4	48.0	33.4	9.3	9.3	26.7	66.4	5.7	1.2
	못 산다	47.8	45.4	4.4	2.4	42.8	38.5	12.7	6.0	38.9	55.3	2.6	3.2
	보통	42.0	39.8	13.0	5.2	40.9	40.2	15.6	3.3	27.1	60.7	9.5	2.7
	잘 산다	41.7	43.9	7.3	7.1	35.8	44.3	12.8	7.1	18.3	70.0	6.5	5.2
	아주 잘 산다	33.3	40.8	17.5	8.4	37.1	47.2	7.2	8.5	21.9	69.3	4.3	4.5
소득출처	본인조달	41.4	44.8	10.6	3.2	37.4	46.3	8.9	7.4	25.6	63.2	10.2	1.0
	타인조달	46.5	47.3	4.5	1.7	45.6	36.4	10.3	7.7	33.4	59.8	4.6	2.2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④ 묻는 뜻을 모르겠다

낮았다. 이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비 출처에 따라 정신적 호소율이 본인이 생활비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낮았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호소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호소율은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관계가 없었다. 정신적인 호소율은 주관적인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비를 타인으로부터 조달 할 경우가 높았다.

#### 6)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

일상생활 속에서 의복은 항상 착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한서감각의 정도에 따라 착의량이 달라질 수 있다. 착의량은 의복보온력의 지표로서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미치고(이원자 외, 2000), 쾌적착의량은 황체기보다 여포기에 더 많아지는(정운선, 2001) 등의 건강의 유지·증진과 관련되는 것들과 관련이 깊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경우는 일생에 걸쳐서 형성된 착의습관이 건강관련변인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노인의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을 파악하였다.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과의 관계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는 총착의량과 일반

<표 6>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과의 관계

착의량 \ 건강변인	신체적 호소	일반적 호소	정신적 호소
총착의량	0.1435	0.2454*	-0.1128
상의량	0.0825	0.1758	0.0999
하의량	0.0526	0.0789	0.0654

\* $p < .05$

적 호소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류숙희 연구(1983)와 일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奥濱(1971)의 결과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한다. 착의량과 일반적 호소수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p < 0.05$ ) 이 경향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의복보온력의 척도라는 관점에서 착의량은 의복기후를 결정짓고 나아가 피부온이나 체온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는데, 추후로는 이와 관련된 순환계질환을 더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IV. 요약 및 결론

환경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착의습관은 한서감각에 따라 형성되며 노인의 착의량도 한서감각이나 건강상

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대전시에 거주하는 노인여성 198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건강관련변인, 착의량, 한서감각, 의복기후, 내한내열성 등을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표면적당 총착의량은  $830.4\text{g/m}^2$ , 속옷량  $242.8\text{g/m}^2$ , 겹옷량  $617.3\text{g/m}^2$ , 상의량  $419.8\text{g/m}^2$ ,  $420.4\text{g/m}^2$ 였다.

2. 본 연구의 환경조건에서  $830.4\text{g/m}^2$ 의 의복을 착용하고 쾌적하게 느끼는 사람은 88.3%였고, 이때의 의복내온도의 평균은  $33.5^\circ\text{C}$ , 의복내습도는 30.2%로 표준의복기후와 비교하면 의복내온도는 다소 높았고, 의복내습도는 낮았다.

3. 노인들은 더위보다는 추위를 타는 사람이 많았으며, 추위를 느끼는 사람의 착의량이 더 많은 경향이였다.

4. 건강관련 변인은 연령이 많아지고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신체적 호소율이 높았다.

정신적 호소율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비를 타인으로부터 조달 할 경우가 높았다.

5.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과의 관계는 총착의량이 많을수록 일반적 호소율이 높았다.

이로부터 노인 여성은 더위보다는 추위에 대해 민감하며, 착의량이 많을수록 건강관련 변인중 일반적 호소율이 높았으나 의복내온도는 표준의복기후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아 착의량을 건강상태에 따라 조금씩 줄여 내한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착의량, 코넬의학지수, 내한내열성, 노인여성,

## 참 고 문 헌

김양원. (1992). 한국남성의 온열환경 적응수단 평가.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양원. (1997). 노인여성의 착의실태와 의복기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3, 27-35.  
 류숙희. (1983).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숙희. (1987). 교실 온열환경에 따른 여중생의 착의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우미. (1982). 온열환경 변화에 따른 착의실태의 위생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명건. (1986). 착의량이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원자, 심규남, 김진선, 박승순. (2000). 생활환경온도와 착의량이 기초대사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학회, 8(3), 374-386.  
 정영옥, 최정화. (1993). 농촌 지역주민의 실내환경온도에 따른 표준착의량의 추정. 한국의류학회지, 17(4), 518-528.  
 정운선. (2000). 추위에 민감한 사람의 체온조절반응과 의복 선택행동. 한국의류학회지, 24(2), 199-204.  
 정운선. (2001). 생리주기에 따른 쾌적 착의량과 쾌적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9), 1655-1660.  
 정운선, 최정화. (1984). 피하지방두께와 착의량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3), 73-79.  
 통계청. (2008). 2008년 고령자 통계. 대한민국.  
 奥窪朝子. (1971). 衣服に關する衛生學的 研究(第 2報) : 冬期の 着衣量に 及ぼす 諸種要因の 影響. 大阪教育大紀要, 20, 101-104.  
 Cena, K., Spotila, J. R., & Avery, H. W. (1986). Thermal comfort of the elderly is affected by clothing, activ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SHRAE Transactions*, 92(2), 157-164.  
 Collins, K. J., Exton-Smith, A. N., & Dore, C. (1981). Urban hypothermia: Preferred temperature and thermal perception in old age. *British Medical Journal*, 282, 527-535.  
<http://epic.kdi.re.kr/epic/epic-view.jsp?num=97055&menu=2>. News Date=2009-03-20  
 Iriki, M. (1987). Body temperature regulation in the disabled, aged, and children. *The 11th symposium on man-thermal environment system*, 51-53.  
 Rohles, F. H., & Johnson, M. A. (1972). Thermal comfort in the elderly. *ASHRAE Transactions*, 78(1), 239-246.  
 Wagner, J. A., Robins, S., & Marino, R. P. (1974). Age and temperature regulation of humans in neutral and cold environment.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37, 562-565.

접 수 일 :  
 2009. 06. 08.  
 수정완료일 :